001 이해식 시집 『감출 수 없는 사랑』
002 김말자 시집 『꿈이 허물벗다』
003 박현태 시집 『여행지에서의 편지』
004 유차영 시집 『바람이 숲에게 고함』
005 수리담시 동인시집 『나의 시, 나의 숨결』
006 연대교육원문학반 동인지 『푸른트럭』
007 전현하 시조집 『창가에 머문 달빛』
008 김용하 시집 『겨울나무 사이』
009 팔색조 동인시집 『사막을 걷는다』
010 박현태 시집 『누가 고양이를 나비라 하는가』
011 성진숙 시집 『앞집 여자의 뷔페식 사랑』
012 연대교육원문학반 동인지 『푸른트럭 2』
013 임현숙 시집 『오뎅과 동치미』
014 이상규 시집 『도반』 산문학상 수상
015 차영순 시집 『황청포구 바람 소리는 내게 잠언이었다』
016 박현태 시집 『사람의 저녁』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017 김영섭 시집 『가슴으로 운 사랑』
018 김용하 시집 『이어도가 나요』
019 박현태 시집 『철새는 제철에 떠난다』
020 이봉남 시집 『꽃잎편지』
021 권영분 시집 『하늘갤러리』
022 하영애 시집 『작은 새 한 마리』
023 박현태 시집 『세상의 문』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024 맹윤정 시집 『침대 밑 블랙홀』
025 유차영 시집 『워카 37년』
026 김용하 시집 『눈 뜨는 날』
027 박현태 시집 『마음의 집』
028 이봉남 시집 『노란 꽃등』
029 신완섭 시집 『단풍시선』
030 유재복 시집 『한밤의 진동』
031 박경순 시집 『이팝꽃 가문』
032 박현태 시집 『빠르게 또는 느리게』
033 한명숙 시집 『그랬으면 좋겠네』
034 박명희 시집 『들꽃이 피는 이유』
035 여영애 시집 『어머니와 냉이국』
036 전현하 시조집 『세월이 남긴 지문』
037 이연숙 시집 『철 지난 모퉁이에서 피는 꽃도 아름답다』
038 박현태 시집 『문득 뒤돌아보다』
039 노광희 시집 『너를 기다리는 동안』
040 박현태 시선집 『세상의 모든 저녁』
041 김영희 시집 『그대 자리 비워둔 곳』
042 최경란 시집 『피어야 꽃이다』
043 박현태 시집 『좋은 날들의 일기』
044 김용하 시집 『피는 꽃』
045 권영기시집 『나목의 노래』

삶의 근원적 물음과 회귀본능적 심상

시인은 본인의 심중 속에 내재하는 서정적 진정성과 회고적 자연성을 진솔하게 보여주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다. 또한, 복고적 감성을 유감없이 회고하는 화자의 뛰어난 시어 구사가 시집 전반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낱말을 씀에 있어 응축하고 감칠맛에 가락을 더하는 명징함을 보여준다.

— 박현태 시인

시집 『나목의 노래』에는 권 시인의 성실성과 노력, 그리고 인간미가 차곡차곡 쟁여져 있는 주옥같은 시편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엄청난 고난과 어둠의 터널을 거쳐 온 작가의 인생 체험과 남다른 외지 체험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온 그의 견문과 내면적 그리움의 맑은 시혼은 많은 시인들의 사표가 되고 있으니, 이 한 권의 시집이 영혼의 쉼터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독자들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리라 믿는다.

— 이광녕 문학박사

03810
9 791162 490846
ISBN 979-11-6249-084-6
9,000원

토담 시인선 045

권영기 시집 나목의 노래

토담미디어

토담시인선 045

권영기 시집

나목의 노래

토담미디어

권영기 시인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2구에서 태어났다. 예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안양으로 고교를 진학하여 생활하였다. 학부에서 노어노문학을, 대학원에서 시를 전공하였다. SK케미칼 및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여러 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현재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 자락에 거주하며 틈틈이 시를 쓰고 있다.

1960년 충남 예산 출생
동국대 대학원 졸업(문학석사)
〈자유문학〉 시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
중국 청도 노산문학상 대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군포문인협회 회원

010-8634-3591
kwonpine@naver.com
kwonpine@gmail.com

표지사진_chalkack_사진협동조합 시옷